

제12차 문화도시 포럼

강릉 청소년의 삶과 문화

2021.9.29 (수) 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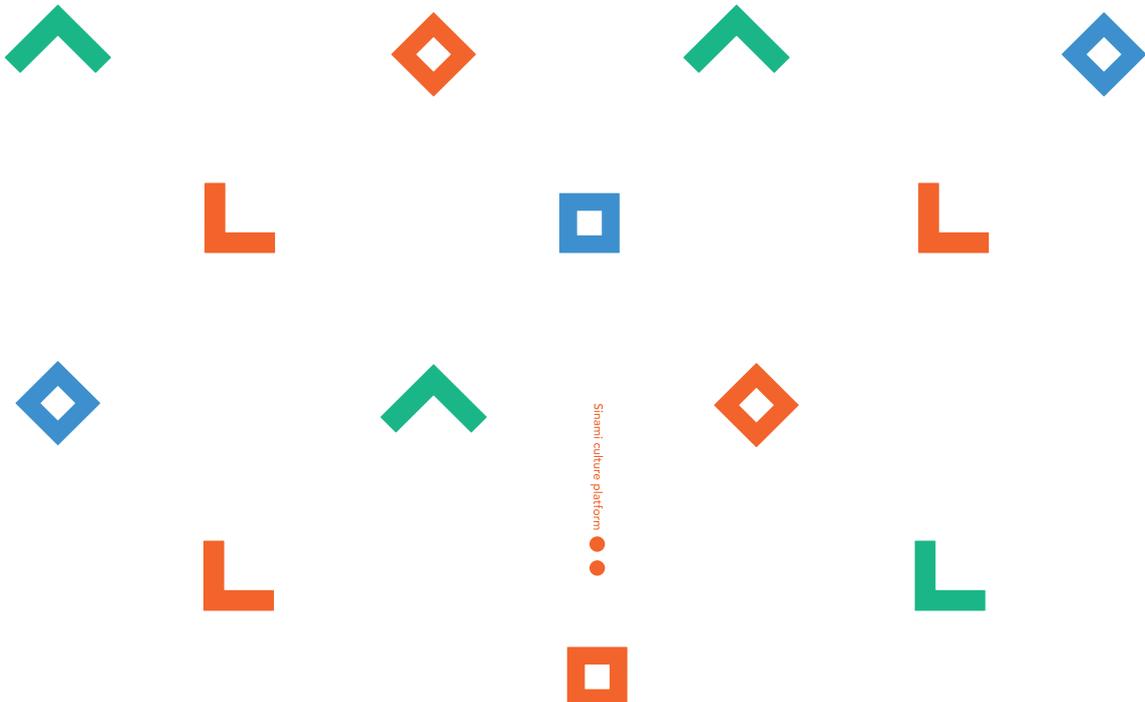
강릉시 평생학습관 1층 대강당

프로그램

기조발제	김동석	전) 강원도교육연수원장
주제발제	심한기	청소년공동체 품 대표
사례발표	김지우	세그루패션디자인고 3학년

토론패널	곽경애	참교육학부모회 강릉지회장
	유홍선	강릉여자고등학교 일반 사회 교사
	이요섭	강원예술고등학교 전문 상담 교사
	이은경	강릉교육지원청 장학사
	최영서	관동중학교 1학년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최대 50명까지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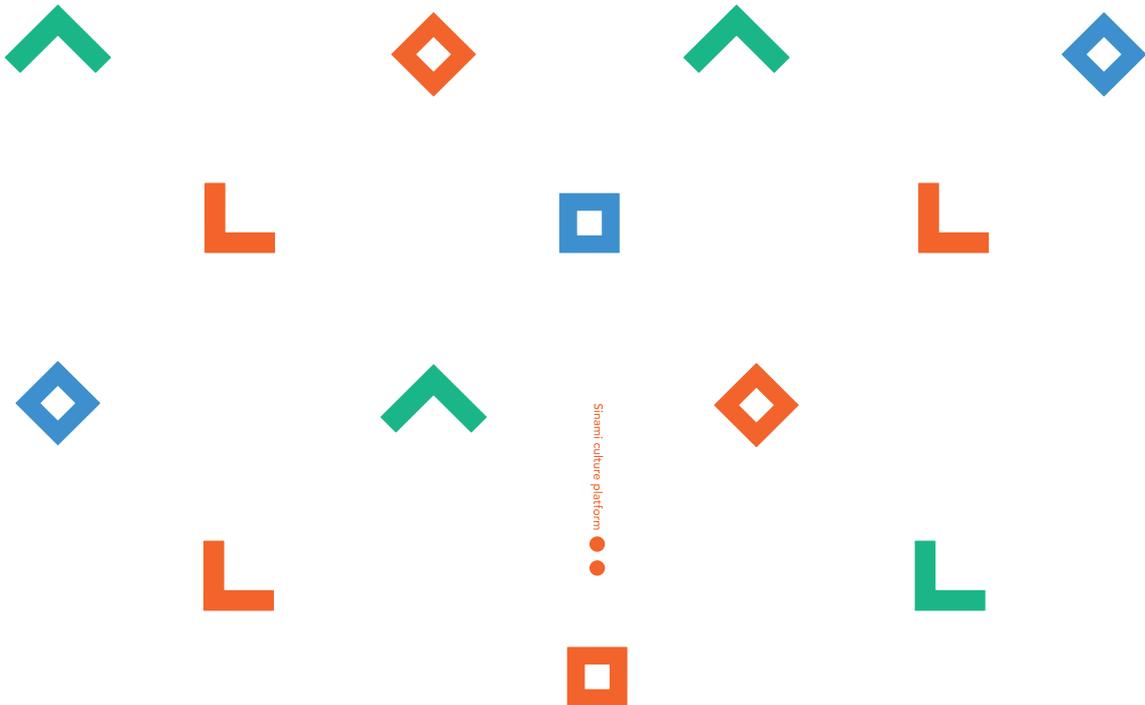


기조발제

길 위에서 길을 묻다

김동석

전) 강원도교육연수원장



의 용인 



- 함께 보면 더더욱 아름답다 -

커뮤니티 용인 네이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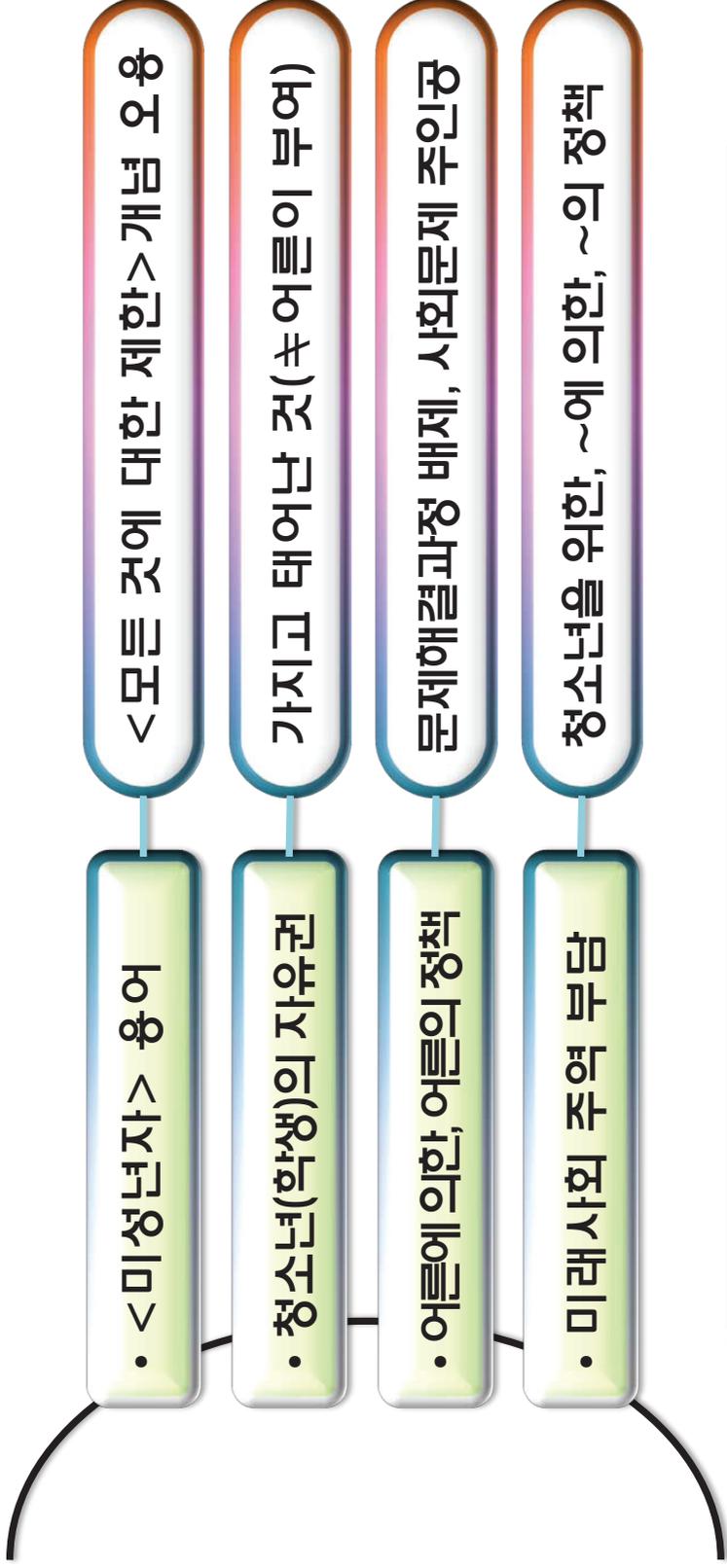
- 눈에 보이는 것에 가려진 노동함을
많이 놓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어디쯤 가고 있는가?

- Covid 19 ⇨ 공동체 책임역량 요구
- 형식교육 ⇨ 사람의 무늬(人文) 찾기

인식의 전환 > 疏通 > 어울림 > 自由

인권과 정책의 문제



학교와 입시의 문제

• 학교 안의 계층과 갈등

부모 소득, 직업 - 자녀 삶에 직접적 영향

• 양극화 심화 / 약순환

인문학적 경험 빈곤 - 다양성 감소

•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문화사회적 자본 공유/생존 이데올로기 탈피

• 입시의 벽을 넘어서

영혼의 빈곤 고민/더불어 주체적 삶 꾸리기

의망의 인문학 + 공유플랫폼 > 온 마을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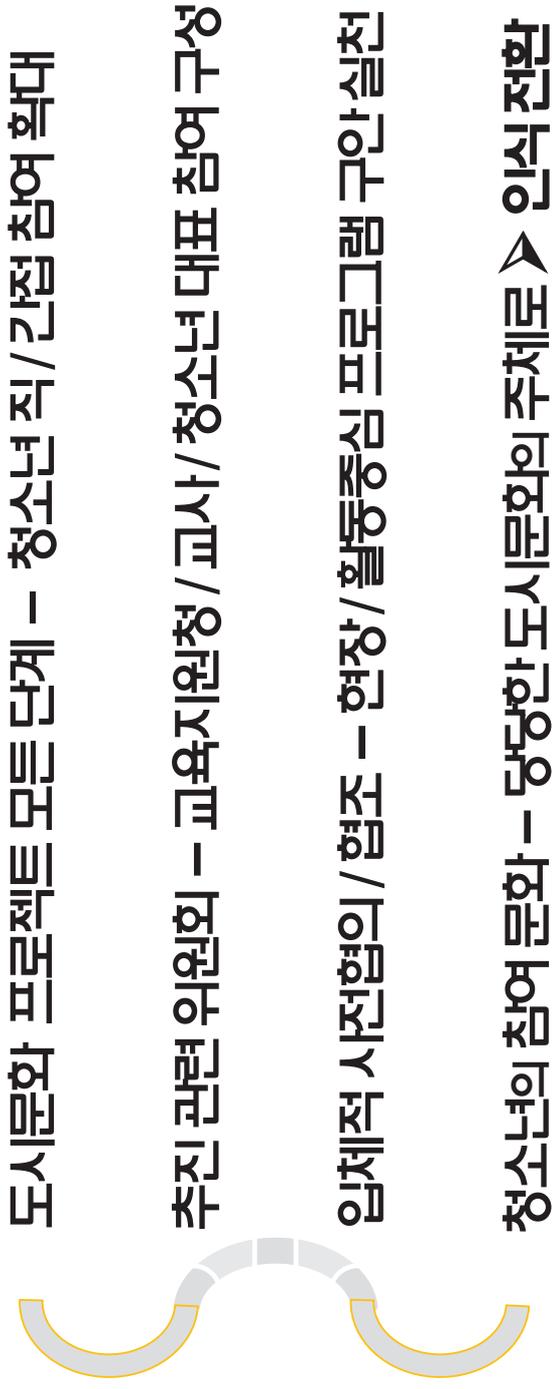
안
영
희
의
포
럼
이
사
의
문
답

어디로 갈 것이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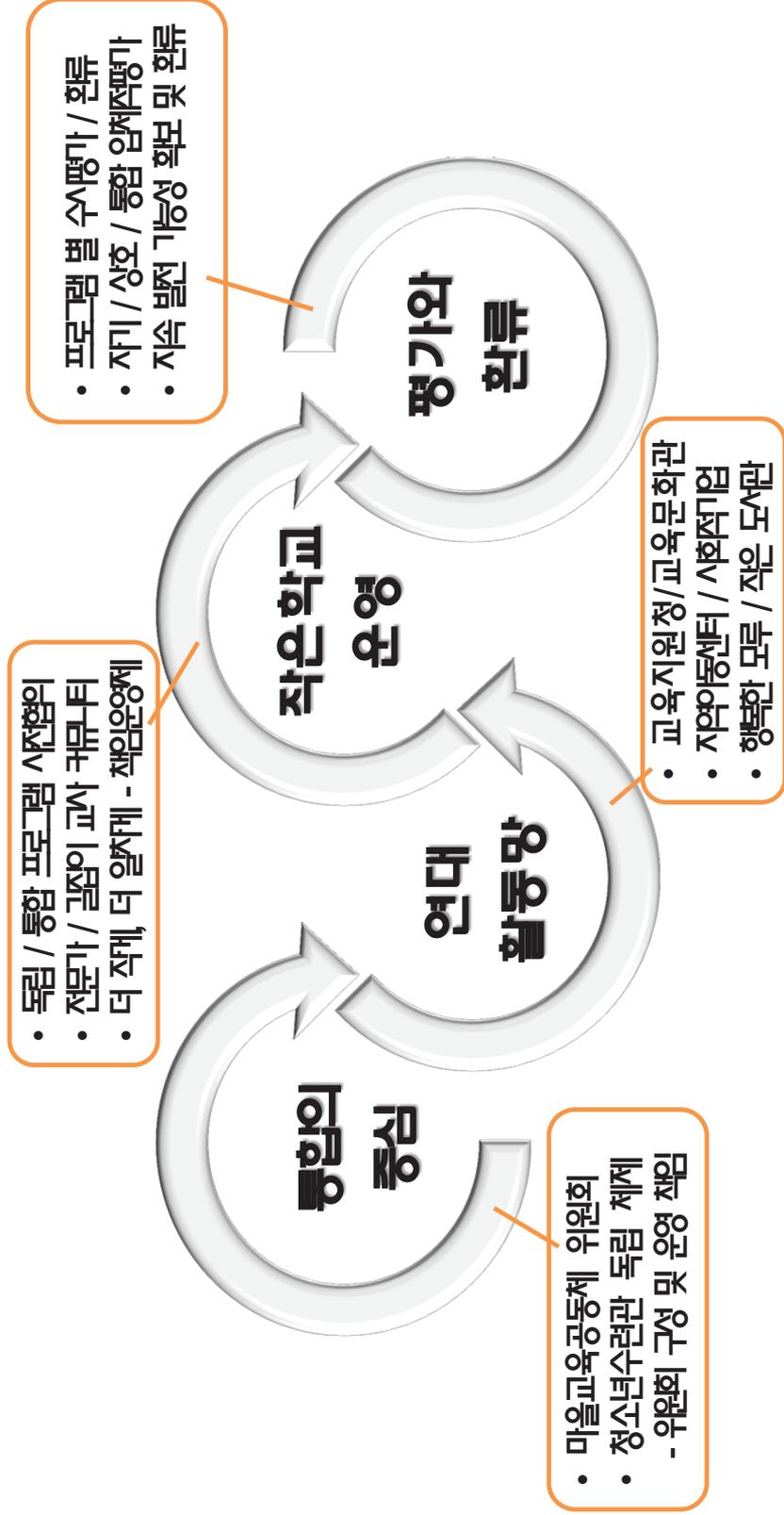
— **어디로 갈 것이냐?** ⇨ **어디로 갈 것인가?** ⇨ **어디로 갈 것인가?** ⇨ **어디로 갈 것인가?** —

도시문화의 중심에 청소년을 세우라!



우리 강릉 > 펼쳐야게 이 도시의 시민 되기

통합네트워킹 구축으로 연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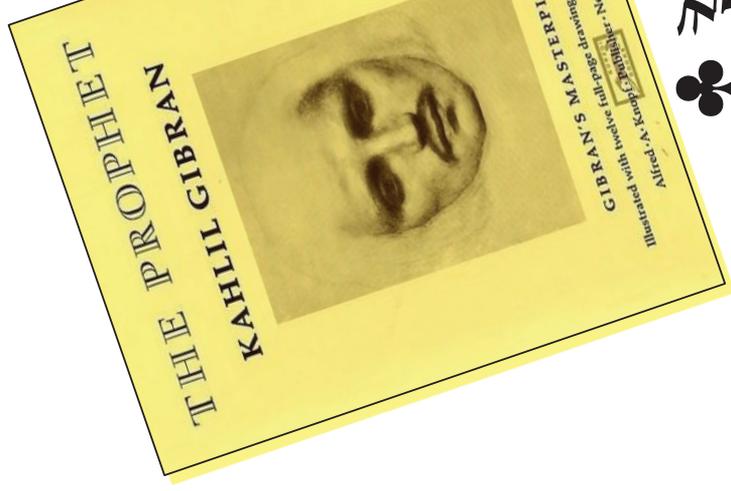


어른 > 문의 지도리 >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문화

12월 14일
문화도시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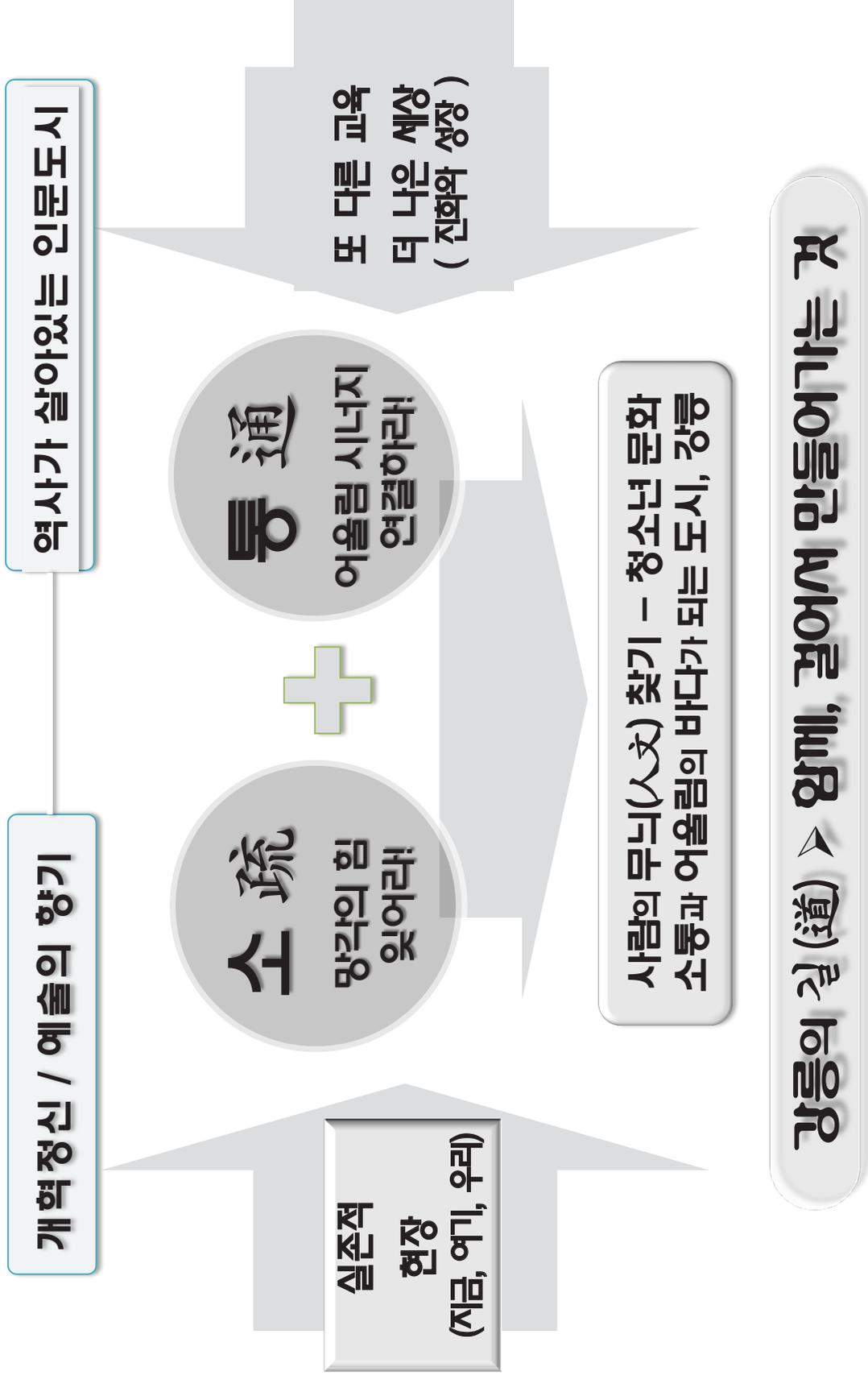
함께 걷는 길 은근 배움

- 사람의 무늬(人文)를 찾아서... -



♣ <선언에> 언란의 <에어자>

어려(부)은 <용의 동> <의 동> <의 동> <의 동> <의 동> <의 동>
!공체 12월 14일 언란의 동은 내기의 배움!





* 노퍽은 언젠가 양방향이다.

- 마음이 머그잔을 응응叩 -

- 靑 靑 -

이제부터 영문 한글로 쓰는 '문구'와 '문구'의 간극을 좁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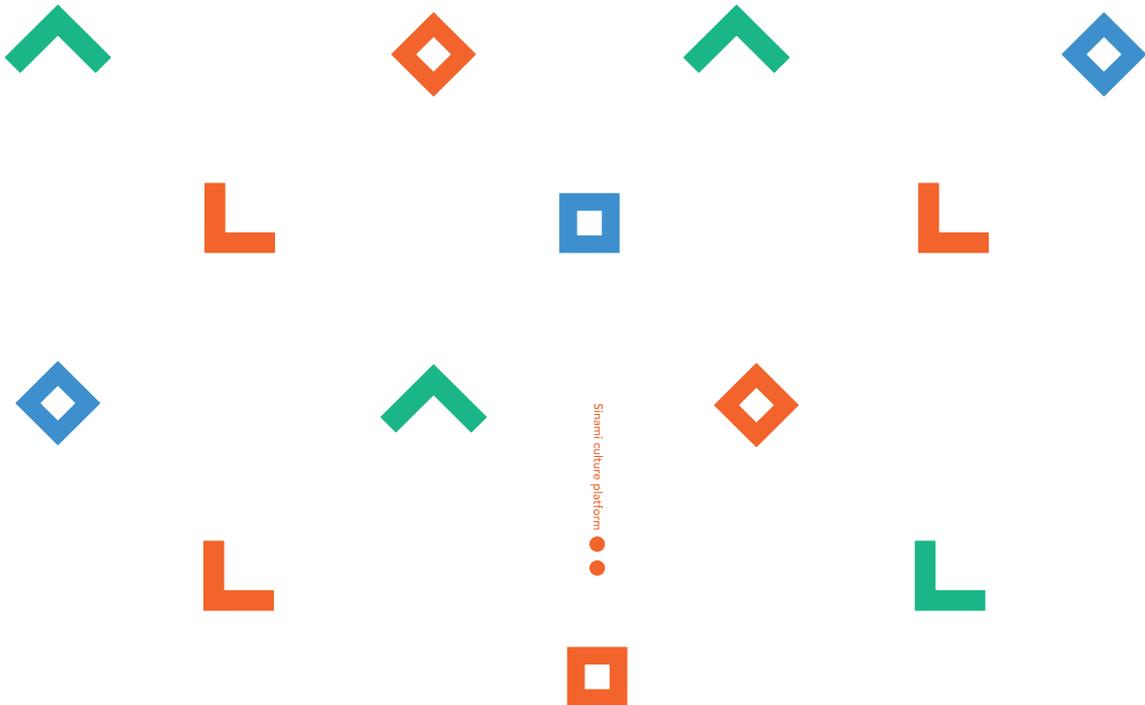


주제발제

청소년의 삶과 문화

심한기

청소년공동체 품 대표



청소년의 삶과 문화

“비현실적 현실성”

서울시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심한기

문화 (Culture)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풍속 그리고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취득한 그 밖의 모든 능력과 습관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전체"
(E. B. Tylor)

"동일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는 일, 행동방식, 사고방식,
감정, 사용하는 도구, 가치, 상징 등의 총체" (R. S. Lynd)

"넓은 의미에서의 모든 사회적 활동" (C. Wissler)

"사회적으로 전수되고 습득된 태도" (F. M. Keesing)

"인간 공동체의 비유전적 삶은 표현 체계 및 그 산물"
(J.P.B.de Josselin de Jong)

문화는 후천적이며 학습이 된다.

문화는 공유된다.

문화는 항상 변할 수 있고 다양성을 추구한다.

문화는 인간의 욕구와 생각을 충족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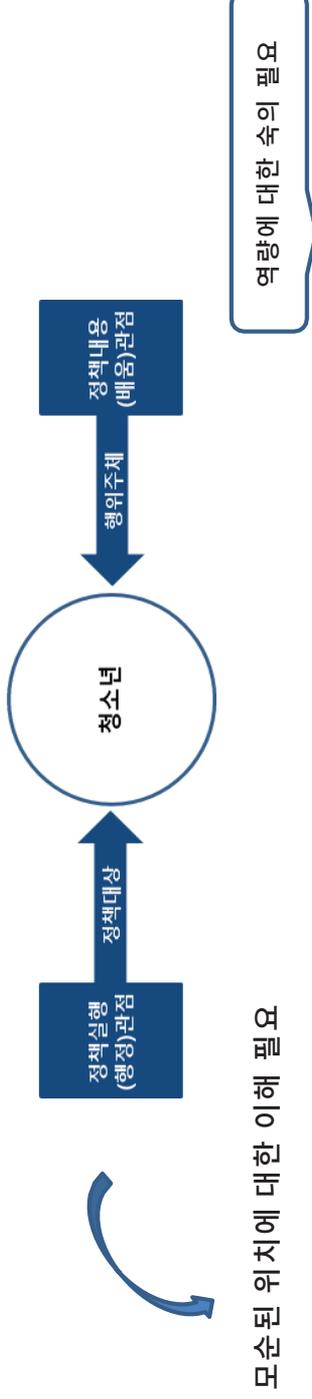
문화는 서로에게 전이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문화는 규정될 수 없으며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

■ 문헌분석 및 주요 여건 분석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다른 시선



모순된 위치에 대한 이해 필요

구분	인적 자본 이론 (human capital theory)	인권 담론 (rights discourses)	역량 접근법 (capability approach)
도입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적용	1948년 유엔 인권선언 이후 확산	1990년 확산되어 국제기구에서 각국 교육 진단 도구로 활용
접근 방식	한 사람의 교육적 투자에 대한 효과를 그 사람의 고용 생산성 측정으로 계산	인간 개발을 정치, 사회, 문화 포괄적으로 해석하며, 평화, 안전, 지속가능성과 연관	교육은 개인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
주요 내용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노동자는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노동자보다 더 나은 고용 기회를 가지며, 평생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입 창출	교육은 인권의 기본으로 빈곤 퇴치와 경제성장뿐 아니라 미래세대, 가정, 공동체의 더 나은 삶의 원동력	역량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자유에 기초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이 교육의 내용
적용	교육적 효과를 경제적 비용과 수익률이라는 산술로 표준화하고, 효과 비교를 용이하게 만들도록 써 많은 국가에서 빠르게 차용	인간 중심적인 담론으로 국제기구는 교육에 대한 선언을 이에 기초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수사적인 수준에서 사용하는 경향	정책의 목적과 실행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정책은 방향성과 발전 가능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개인의 내재적 가치 확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확산

문헌분석 및 주요 여건 분석

오늘날 청소년 특징

세대		Z세대	
밀레니얼세대		Z세대	
출생시기	1984~1996	1997~2010	
주요사건	정권교체, IMF경제위기, 인터넷-휴대폰, 2002월드컵, 디지털 1세대	경제위기 상시화, 세월호-각자도생, 국제분쟁, 한류/뉴트로, 공유 1세대	
가치관	정서적 안정, 높은 나의 만족도	포용성, 개성, 다양성	
디지털기기	TV, 스마트폰, 태블릿	유튜브, 시물인터넷(IoT), 링크 동영샷 뮤지컬리	
영향주는사람	셀럽	유튜브 크리에이터	
정보신뢰	검색엔진 활용	지인으로 부터 얻는 정보	
소비성향	브랜드 지명도에 따른 선호	개성 중시 맞춤형 브랜드 선호	
직업관	취업 후의 자기개발도, 다양한 일에 도전하기 위한 샐러리맨 (salaryman+student), N잡러 등		
라이프스타일	YOLO(You Only Live Once, 옴로),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가능성에 도전		

MZ세대의 특징

인플루언서를
일상력 챌린저
컨셉진 세컨
슈머
선한 오지랖



Z세대에서 강화된 특징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가장 편견 없는 세대
자신의 정체성도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 자
기 인정욕구로 강한 소비력 욕구가 억
눌렸을 때 매우 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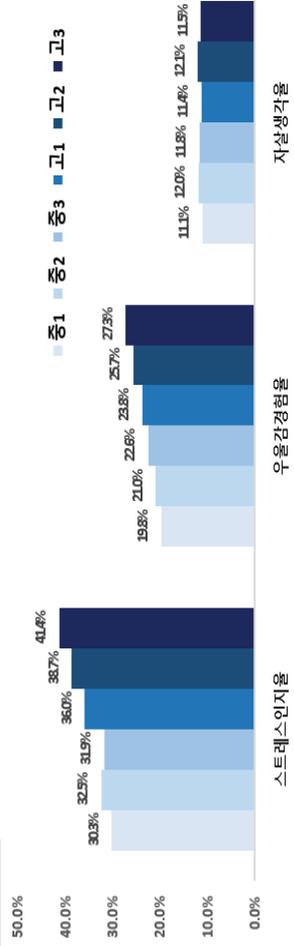
세대이해 기반한 개인 이해 필요

세대론은 개인에 대한 설명이 아님
새로운 세대에 대한 탐구 필요 마을배
음은 집단이 아닌 개인에 초점 개인의
정체성/고유성을 이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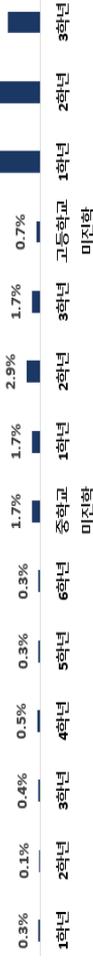
2

문헌분석 및 주요 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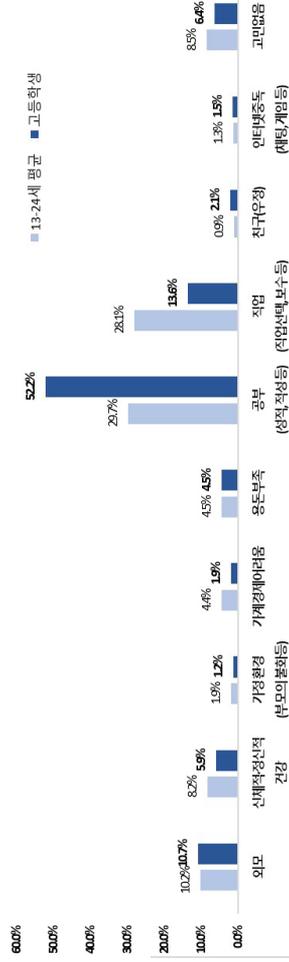
4) 오늘날 청소년 현실1



2019 학교를 그만둔 시기 조사



청소년의 고민과 고등학생의 고민 비교 (2020)



2015년부터 3년 간 강원도내 고등학교 재적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 두는 청소년은 2015년 665명, 2016년 691명, 2017년에는 817명으로 증가. 특히 학교 알리미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교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1.5% 였는데, 강원도는 1.6%를 넘어 전국 평균도 상향.

지난 2017년 도내 중학교에서는 201명이 학업을 중단했고m, 초등학교의 학업중단 비율도 2015년 0.3% 에서 2017년에는 0.52%로 증가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 중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교우 관계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학업을 그만 두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실제로 지난 2017년 질병과 해외 출국 등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은 97명데 반해, 학업관련, 대인관계, 집안사정 등의 이유로 자퇴한 학생은 600여 명을 넘었습니다.

또 실제로 청소년 쉼터 등을 찾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한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더 복합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이 집단 따돌림을 겪게 되고, 학업이 부진한 학생이 학교 밖 친구들과의 일탈에 빠지는 등 가정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학교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어져 극단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보호시설 현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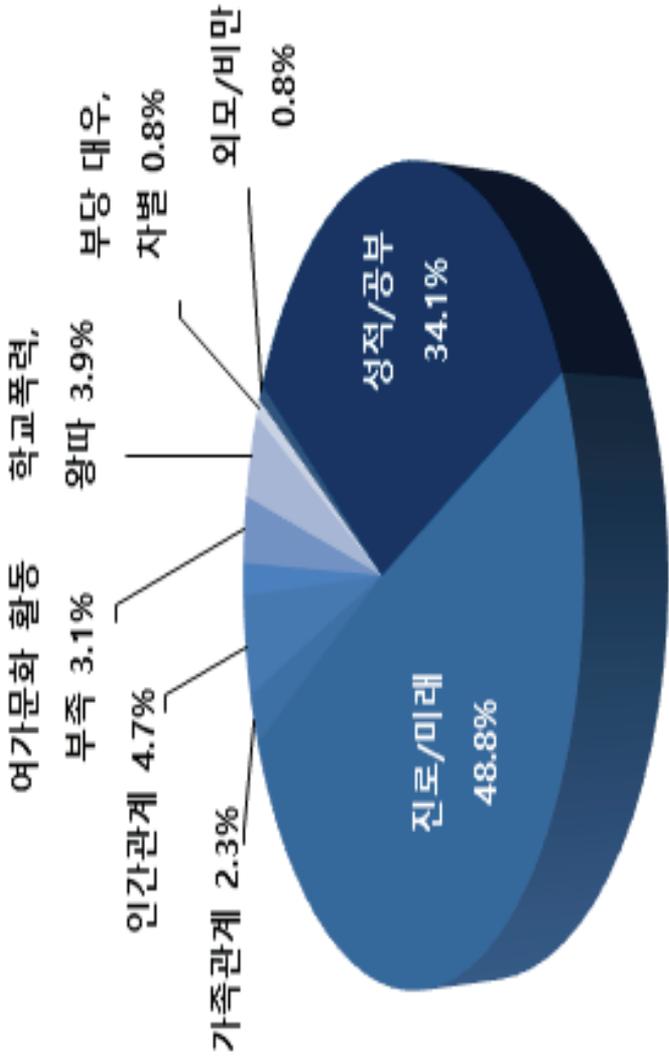
강원도에서 한해 400여 명이 넘는 가출 청소년들이 발생.

대부분 가정과 학교를 모두 벗어난 위기의 청소년들이지만, 애석하게도 이들이 안전하게 기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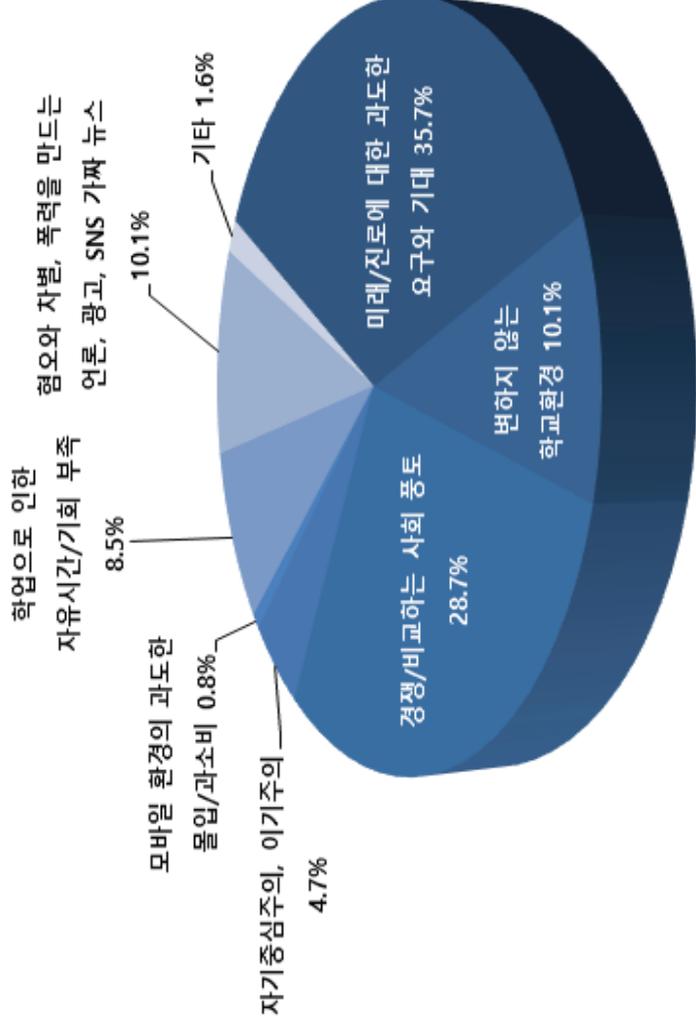
우선 강원도에서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는, 춘천에 5곳이 있고, 강릉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쉼터 1곳이 운영돼 도내에는 6곳의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 2019년 3월 강원방송 발취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어려움)들은 무엇인가?



사회나 세상 때문에 생긴 청소년들의 문제(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문화 (Culture)

' 사람(푸르사)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타인에게 표현하고 소통하고 관계하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이것들이 다른 사람과 세상으로

전달 되거나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그런 시간이 나의 삶의 행복으로 만들어지는 것 "

청소년 만든 문화공간!



청소년이 만드는 축제!





그들의 주제적 힘





강릉의 가능성...





사례발표

청소년

김지우

세그루패션디자인고 3학년



Shamit culture platform



1. 숨을 알기 전 나는

삶의 반 이상을 학교와 교우관계에 힘썼던 사람이었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전부였고 내가 다닌 중학교는 우리 동네에선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학교였다. 교칙도 여자는 어깨 위 3센치의 단발, 치마는 무릎 아래 7센치 등등 뽀센 학교였다. 그만큼 공부를 시키려는 부모님들이 보내는 아이들이 많이 모일 수 밖에 없었고 분위기도 그랬다. 공부를 못하면 문제아, 무시받는 기분이었다. 또한 학교에서의 공부는 노력과 배움이 아닌 성적으로만 나라는 한사람을 판단했다. 나는 보통 질문이 많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다. 그치만 성적이 좋지 않다. 이런 학생을 보는 눈은 눈치없는 아이, 문제아, 시끄러운 아이, 산만한 아이 등등 안 좋은 키워드만 붙어있었다.

공부만 하는 분위기가 너무 싫었고 나같이 좀 시끄럽고 말이 많아 산만하더라도 재밌고, 앉아서하는 공부보다는 실기를 위주로 하는 학교를 가고싶어서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로 진학하였다. 하지만 특성화고도 마찬가지로 지웠다.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 특성화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해서 온 것이고, 인문계 학생들보다 못한 식으로 생각하는게 보였다. 또한 자격증에만 목 매달고 취업에만 목숨을 거는 선생님들의 태도나 주변 친구들..

내 꿈은 래퍼다. 그렇기에 음악을 전문으로하는 전문대학을 진학하고 싶어 당당하게 선생님께 얘기를 했다. 돌아오는 대답은 세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 너가 무슨 래퍼야, 그럴거면 쇼미더머니를 나가. 취업은 해야지, 나중에 후회한다. 친구들은 다 취업해서 돈 벌고 편하게 사는데 너 혼자 알바하면서 음악할래? 이런 소리를 들을때마다 나는 왜 주변사람들과 비교를 당하며 같은 길을 강요받는가에 대한 의문과 짜증이있었다. 난 내가 불법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내가 하고싶은 일을 하려 노력하는 부분에 자꾸 눈치를 주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른들이기에 어른들은 나에게겐 불편하고 나를 이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왔었다. 어른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이 다 맞다고생각한다. 자신이 후회하는 건 아이들도 그럴거라 생각하고 자신이 만족하는건 아이들도 만족할거라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으로 따지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싶다.

2. 숨에서의 활동

고2때 친구들과 10만원 프로젝트를 했었다. 처음에는 아빠가 이런 활동들이 있다며 툭 던져주었고 찾아보니 숨에서 하는 활동이며 내용은 대충 10만원으로 내가 하고싶은 모든 걸 해도 된다는 말이었다. 이런 프로젝트는 처음이라 의심이 갔다. 공돈을 준다고? 내가 하고싶은 건.. 옷 사기 떡볶이 먹기 친구들이랑 놀기.. 등등 내가 생각하기에 한순간 지나가는 행복들뿐이었다. 사실 처음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이 돈으로 그냥 즐겁게 놀고싶단 마음이었던것같다. 우리는 악세사리를 만들어보기로했다. 팀명은 간지작살. 서로의 성격, 색깔을 담아 각자의 악세사리를 만들고 그에 맞는 설명과 이름을 붙여 상품을 내놓았다. 이 활동도 물론 나한테 있어 처음해보는 경험이었다.

보통 청소년을 위한 센터에서 하는 활동들은 이미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완성된 다음 그것을 원하는 학생들이 신청을하고 거기에 맞는 선생님이 붙여 수업만 진행하고 빠이치는 형식이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고 싸게 배울 수 있는 활동들이라 생각해 딱히 불만은 없었다. 근데 마을배움터라는 곳을 와보니 나한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다. 신청을 하고 계획서를 쓰러 직접 마을배움터를 방문하게 됐다. 보통 센터와 같이 선생님들이 계셨고 낭만공유지라는 카페 비슷한 곳에서 짝궁쌤과 얘기를 나눴다.

우선 여기서 놀랬던건,, 당연히 나는 이 프로젝트를 신청한 모든 아이들이 모여 한 분의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근데 짝궁쌤이란 분이 붙어 우리 팀,각각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붙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를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때 내가 정말 이렇게해도 되는거예요?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짝꿍은 일단 해보는거지. 실패를 무서워하지마라는 말을 해주셨다. 이 말은 마을배움터의 가훈같은 말이다. <실패해도 돼> 이 말은 나에게 큰 용기와 도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렇게 처음 시도해보는 10만원 프로젝트는 마무리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건 짝꿍들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나를 생각하고 터치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해야 이 아이가 하고싶은 것을 더 편하게 넓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봐주신다.

나는 보통 선생님이라하면 나를 가르치고 잘못하면 혼내는 사람이었는데 짝꿍은 정말 말 그대로 짝꿍처럼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해주시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하여 계획대로 맞춰서 하려는 생각은 버리라는 말을 해주셨다. 계획은 정말 그저 계획일뿐. 이 말은 나에게 부담을 더는 큰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많은 내 또래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싶었다. 또, 마을배움터와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던것이기도하다. 그래서 축제기획단에 참여하였고 이것은 10만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축제를 기획단들이 모여 (신청한 학생들)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가는 모임이었다.

3. 숨에서 활동하고 나니

마을배움터는 내가 생각하는 선생님이라는 틀을 깬 장소이기에 여기서는 내가 잘 할수 있는것과 처음 도전해 보고 싶은 것들을 많이 했다. 축제기획단에 이어 정식 기획단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마을배움터를 알리는 여러 홍보를 기획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실행하진 못했지만 청소년들이 모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촬영,배우,회의 등등..청소년이 쉽게 접해보지 않은 활동들을 했다.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숨에서는 모두가 실패를 하든 계획대로 되지않든 항상 응원을 해주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성장했다는 걸 깨달았다.

학교에서는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나와 성격이 비슷한 애들과 어울려 다니며 좁은 우물이었다하면 이 곳은 나와 전혀다른 삶을 살고 있거나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소이다. 나한텐 이런 새로운 사람들과 다양한 얘기들이 부담이 아닌 색다른 경험으로 쌓였다. 배려, 자신감, 공감능력 등등 나도 모르는 사이 더 나아갔다.

학교는 사실 노력과 경험을 인정해주는 곳이 아닌 실력과 결과로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했는데 이 곳은 나의 경험과 과정을 인정해주는 곳이기에 또 다른 가족,친구라는 느낌이 들었다.

흔히들 말하는 공부와 배움이 아닌 내 생각과 마음을 키우며 배우는 이 곳은 나에게 집과같다.

4. 요즘의 나

이번년도에도 10만원 프로젝트를 참여했다. 이번엔 3명이 각자 진정 해보고 싶은 것이 뭔지 생각해보기 위해 각자 따로 신청하기로 했다. 작년엔 애들과의 추억,재미를 위해서 했더라면 이번엔 조금 더 나에게 의미있는, 미완성된 부분을 고칠 수활동을 생각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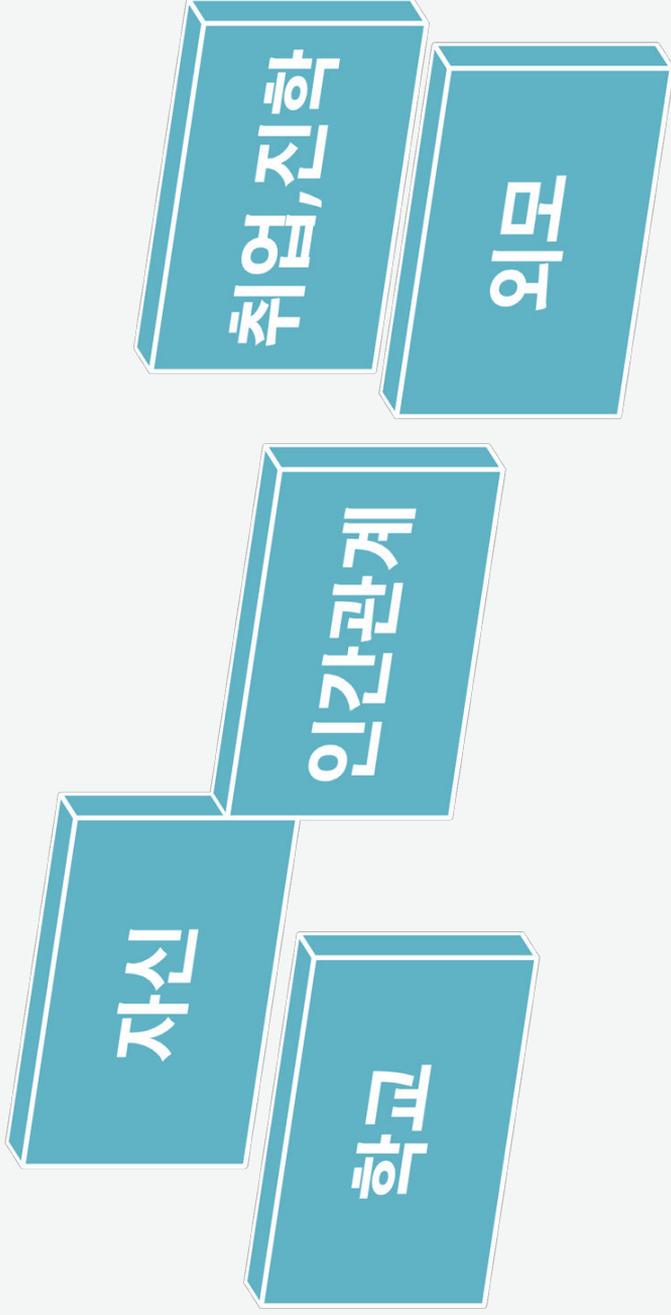
내가 잘하는 것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싶어, 일기를 쓰고 일기를 가져다 곡을 만들기로 했다. 나는 이 활동을 하기 전 나에 대해 알기가 어려웠다. 밖에선 항상 밝은 아이로 보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는 불안과 걱정이 더 많은 아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상한 사람인거 같고 가면을 쓰고 사람이 대한다 생각했다. 그치만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럿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거나 학생 때 이런 고민을 하셨다 말했다.

현실을 살면서 깊게 천천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 고민들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찾은 덕분에 모든 내 일에 자신감이 붙었고 용기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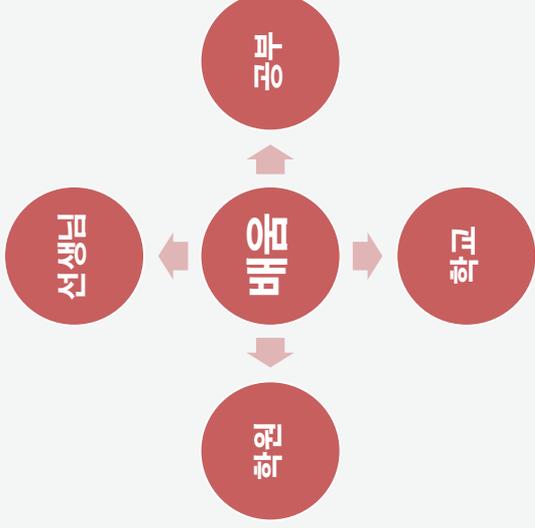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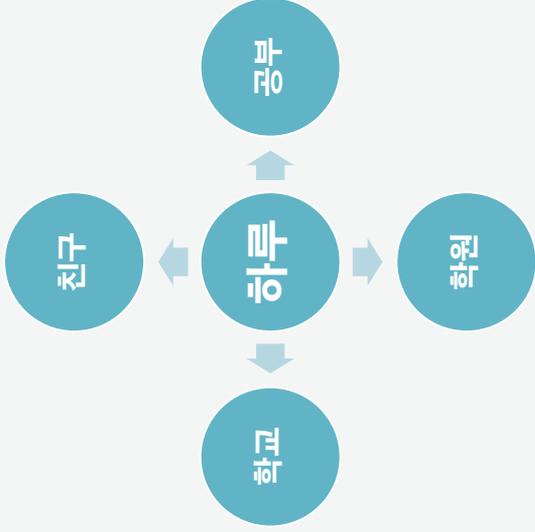
청소년

청소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고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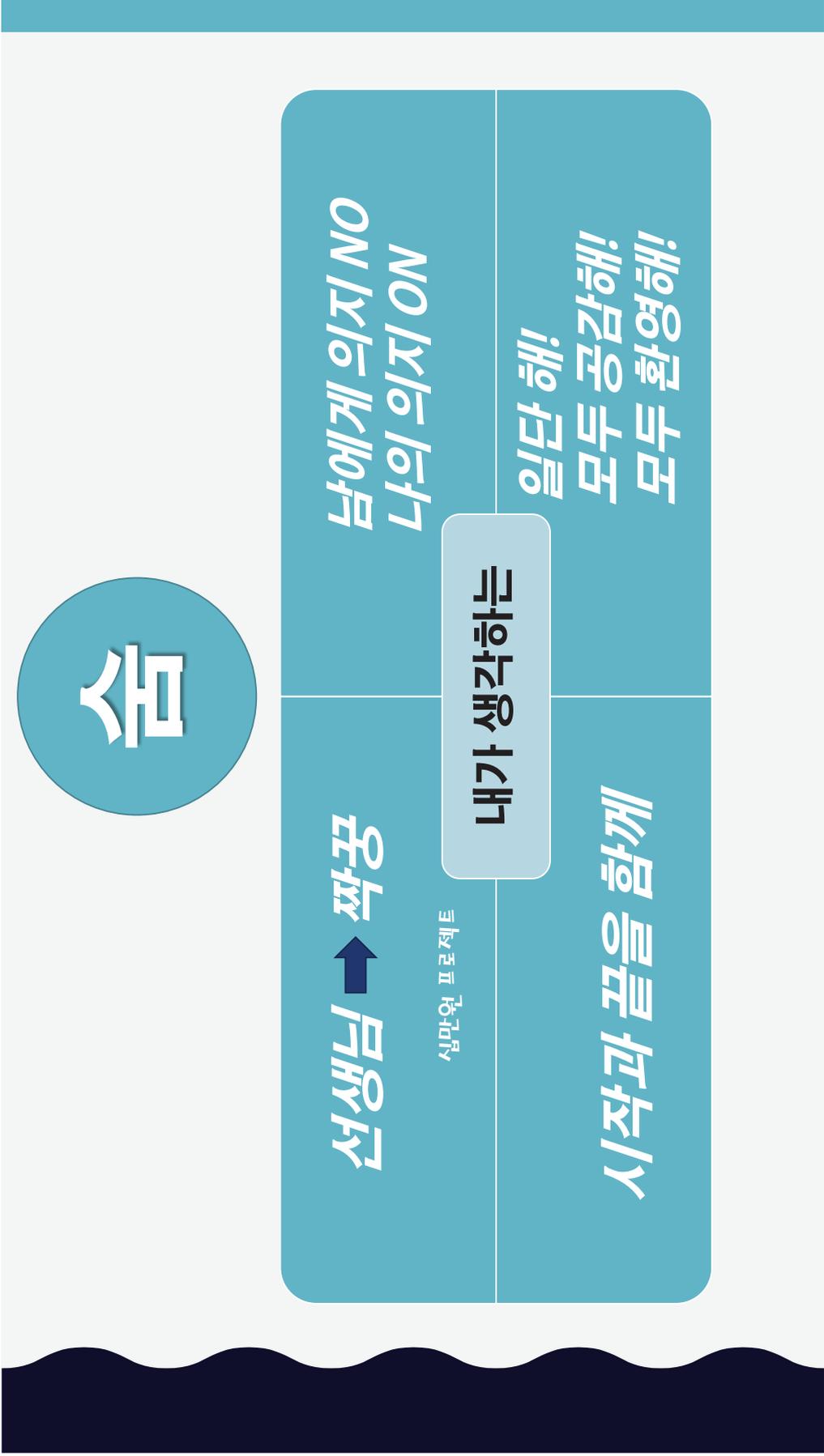
청소년들의 고민? 스트레스?



현재의 청소년







숨에서 말하는 배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찾아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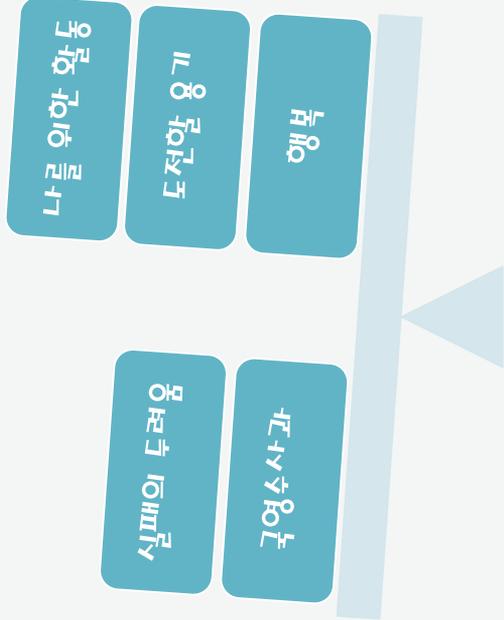
즐거게 노는 방법을 알려줄게

너희에게 불가응이란 없어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

무엇을 하고 싶은
지 찾을 기회를 주
는 것

쉬어가고 되고
실패해도 돼



숨에서의 활동



심마원 프로젝트



숨에서의 활동

기획단





숨에서의 활동

청소년세탁하고





숨이 주는 영향력



숨을 만나고 난 뒤

- 옷은 나일 더 많아졌다.
- 새롭게 시도하는 게 두려움이 적어졌다.
- 실패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다.
- 사람을 만나고 태도가 달라졌다.
- 실패에 대한 편견함을 알아냈다.
-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생각하는 게기가 되었다.









